

“회원간 화합·시민과 문학 정서 공유”

신임 이근모 광주문인협회 회장

원고료 지급 상향 등 공약 이행
고령화 따른 젊은 문인 유입책 마련
창작지원금 소외 없게 제도 개선

“광주문인협회(광주문협)를 지금보다 더 나은 단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회원 간 소통에 초점을 두고 협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임 광주문협 회장으로 선출된 이근모 시인(사진)은 인터뷰에서 “단체를 화합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시민들과 함께 문학의 정서를 공유하는 생산적인 단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 기쁨에 앞서 단체 대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해 효율성과 화합을 감안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작품 발표 기회 확대와 원고료 지급 상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협의 기관지 ‘광주문학’ 원고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발행도 현행 3개월에서 격월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현재 광주문협에 등록된 회원은 729명이다. 65세 미만은 180여 명, 65세 이상 80세 미만은 380여 명, 80세 이상이 170여 명으로 고령화 된 단체라 할 수 있다. 물론 물리적인 나이로 고령화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작품에서 언급되는



사유의 표현이 청년의 인식과 사유라면 그것은 ‘젊은 작가’의 작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관점에서 고령화는 문협의 활성화 측면과 직결된다. 이 회장은 “회원간 소통과 정서 공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한편으로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가상공간을 매개로 작품을 발

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젊은 문학인들이 협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시 말해 유입 방안도 필요하다. 그는 가상공간에 작품을 탑재하면 이를 QR코드화 해 스마트폰에서 감상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기관지는 위탁 출판의 동인지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향후에는 자체 출판으로 전환해 신인 작가 등단 및 회원 가입과의 연계도 모색할 방침이다.

“좋은 작품 생산은 문학상 제도 활성화와 관련이 있지요. 문협 자체 문학상을 비롯한 외부 문학상과의 연계를 토대로 문학상 신설 또는 유지 등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좋은 작품을 쓴 회원에게 적절한 시상과 홍보가 이루어질 때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회장은 창작 지원과 관련해서도 개선 방향을 이야기했다. 중복 지원과 같은 폐단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젊은 지역에 ‘문화의 파벌주의’ 같은 보이지 않는 집단이 형성돼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점입니다. 무엇보다 창작지원금 대상에서 수혜자에게 중복 지원하는 폐단은 없어야 합니다. 소외된 문학인이 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 신임회장은 교육행정공무원(부이사관)으로 퇴직했으며 조선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월간 ‘문학공간’에 시로 등단했으며 광주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올해 드라마 복 터졌네

스타 작가·배우 컴백...스릴러·사극 등 장르 다양



배우 김희애

작가 김은희

배우 고현정

방송사들이 올해도 풍성한 라인업을 저마다 내놨다. 코미디, 멜로 드라마는 물론 김은희 작가표 미스터리 스릴러부터 대하사극까지 장르도 다양하다.

◇KBS는 대하·MBC는 퓨전사극 2편

KBS는 공영방송 50주년 특별기획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을 11월 중 방송한다. 고려 전기에 거란과의 30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현종과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를 담은 ‘고려거란전쟁’은 귀주대첩을 처음으로 영상화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MBC가 3월 중 방송하는 ‘조선변호사’는 우도환, 김지연, 차학연이 주연을 맡은 사극으로, 조선 시대 변호사 강한수가 부모님을 죽인 원수에게 재판으로 복수를 하는 과정을 담는다.

‘방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연인’도 올 하반기 공개를 앞두고 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닿을 듯 닿지 못한 연인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남궁민이 드라마 ‘구암 허준’ 이후 11년 만에 사극 연기를 펼치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출연했던 안은진이 그와 함께 멜로 호흡을 맞춘다.

SBS는 스타 작가들의 신작으로 승부수를 띄운다.

먼저 드라마 ‘시그널’, ‘킹덤’ 등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의 신작을 선보인다. 오는 6월 방송 예정인 ‘악귀’는 문을 열면 악귀가 있는 세상에서 악귀에 현 여자화 그 악귀를 볼 수 있는 남자가 다섯 가지 신체(神體)를 둘러싼 의문의 죽음을 파헤치는 오컬트 미스터리 스릴러다. 주인공은 배우 김태리.

‘펜트하우스’의 김순옥 작가는 신작 ‘7인의 탈출’을 9월 중 선보인다. 수많은 거짓과 욕망이 뒤엉켜 사라진 한 소녀의 실종에 연루된 7인 이 엄청난 사건을 맞닥뜨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엄기준, 황정음, 이준, 이유비, 신은경, 윤

종훈, 조윤희, 조재운, 이덕화 등이 출연한다.

◇여성 서사 작품도 줄줄이

JTBC는 연기 내용이 탄탄한 여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대행사’에 이어 ‘닥터 차정숙’을 선보인다.

지난 8일부터 방송 중인 ‘대행사’는 최초로 대기업 광고대행사 여성 임원이 된 주인공 고아인(이보영 분)이 최고의 위치까지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올리는 모습을 그린 드라마다.

‘닥터 차정숙’에서는 엄정화가 20년 차 가정주부에서 1년 차 레지던트가 된 차정숙을 연기한다.

채널A는 김선아, 오윤아, 유선, 신은정이 주연하는 새 드라마 ‘가면의 여왕’을 올 상반기 방송한다. 화려하게 성공한 세 명의 친구들 앞에 10년 전 그녀들의 거짓말로 살인자가 된 옛친구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고현정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스크걸’을 통해 코믹 연기를 선보인다.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평범한 직장인 김모미가 밤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면서 의도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다.

김희애와 문소리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퀸메이커’로 시청자들을 찾는다. 여론을 흔드는 이미지 메이킹 전략의 귀재 황도희(김희애 분)가 약자의 편에서 서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노동인권변호사 오경숙(문소리)을 서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선거판에 뛰어든다.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영애는 새 드라마 ‘마에스트라’에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여성 지휘자로 변신한다.

프랑스 드라마 ‘필하모니아’를 원작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비밀을 가진 여성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안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헤치며 자신을 둘러싼 진실에 다가가는 이야기다. /연합뉴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활성화’ 1159억 투입

문체부 올 예산 1조5131억
광주 문화관광 육성 514억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1조5131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정책에 4310억 원, 예술정책에 7738억 원, 지역문화정책에 383억 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예산 포함)을 편성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 문화관광산업 육성 예산을 514억 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을 645억 원으로 확대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을 364억 원으로, 지역 노후 산업단지 등을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256억 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예술대학생의 창작 활동과 행정 실무경험을 지원하는데 58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창작에 필요한 기술·공간·장비 활용을 지원하는 배우처(이용권, 21억 원)를 도입한다. 예술경영아카데미를 예술산업아카데미로 개편해 인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데 19억 원을 지원하고, 예술활동 종합지원 플랫폼인 아트코리아랩을 올해 6월 준공한다.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하는데도 지난해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으로 645억원을 배정했다.

89억 원 증액한 869억 원을 편성했다.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사업에 27억 원을 새롭게 반영해 162억 원을 편성했다. 국어 어원사전 구축, 글쓰기 능력 진단 체계 개발에 각각 12억 원과 14억 원을 신규 지원하며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역별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212억 원을 투입한다.

또 청와대를 문화예술·역사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예산 104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저소득층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을 지난해보다 221억 원 증액한 2102억 원으로 책정했다.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등 신규 과제가 포함된 ‘함께누리 지원’ 사업 예산도 262억 원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